

# 코로나19(COVID-19) 환경 속에서 K대학 신입생의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김혜옥<sup>1\*</sup>, 윤종식<sup>2</sup>, 김진현<sup>2</sup>, 조해윤<sup>2</sup>

<sup>1</sup>경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sup>2</sup>경남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 In the COVID-19 Environ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Adaption to College Life of Freshmen at K-University

Hae Ok Kim<sup>1\*</sup>, Jong Sik Yoon<sup>2</sup>, Jin Hyun Kim<sup>2</sup>, Hae Yun Jo<sup>2</sup>

<sup>1</sup>Professor, Dept. of Nursing, Kyungnam University, <sup>2</sup>Undergraduate, Dept. of Nursing, Kyungnam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K대학 신입생의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실증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K도 소재 K대학교 대학신입생 120명이고, 온라인 자가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5월 10일까지이다. 자료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SPSS/WIN version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그룹간의 차이는 독립 t-test, 일원배치 ANOVA로 분석하였다. 사회적지지는 7점 만점에 평균 5.35±0.99점, 회복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35±0.34점, 대학생활적응은 9점 만점에 평균 4.93±0.63점 이었다. 대상자들의 대학생활적응과 회복탄력성( $r=.380$ ,  $p<.000$ ),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r=.372$ ,  $p<.000$ )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사회적지지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는 바이다.

주제어 : 코로나19(COVID-19), 대학신입생,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대학생활적응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 descriptive investigative study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college life adaptation of freshmen at K University. The participants comprised 120 freshmen from K University in K-Do, and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online self-questionnaires. Data collection was from April 1, 2021, to May 10, 202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 independent t-test, a one-way ANOVA, and th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hrough the SPSS 25.0 Program. The average social support was 5.35±0.99 out of a total of 7 points, the average resilience was 3.35±0.34 out of a total of 5 points, and the average college life adaptation was 4.93±0.63 out of a total of 7 points. College life adaption and resilience( $r=.380$ ,  $p<.000$ ),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r=.372$ ,  $p<.000$ ) was shown to be a significant statistic correlation. In conclusion, through this research, we propose to develop programs that can increase social support related to college life adaptation of college freshmen even in crisis situations such as COVID-19.

Key Words : COVID-19, University Freshmen, Social Support, Resilience, College Life Adaptation,

\*Corresponding Author : Hae Ok Kim(hok503@kyungnam.ac.kr)

Received May 19, 2021

Accepted August 20, 2021

Revised June 25, 2021

Published August 28, 2021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19(COVID-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2020년 1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면서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1월 30일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andemic)’를 선포하였다[1].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인하여 대부분 대학에서는 대면 수업보다 원격으로 수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대면 활동을 통한 대학 생활에 대한 사회화의 기회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활히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 부적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2]. 또한, 대학 신입생들은 기존 신입생들과 다르게 코로나19(COVID-19)의 발생 상황에 따른 정부의 예방 정책에 맞추어 대학 생활을 하게 되었다.

대학신입생에게 있어서 대학 생활 적응은 대학 내의 환경 속에서 구성원들과 능동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3]. 대학 생활에서의 올바른 대인관계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인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4]. 대학 생활 중에서도 1학년은 전체 대학 생활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5]. 또한, 대학 생활 동안에 대학 동기 및 선·후배를 통하여 대학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성숙과 적응은 그들의 미래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6].

하지만 2021년에 입학한 대학신입생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학 생활이라는 것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대면 및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에 대학 생활 적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대학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회적지지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7].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이를 통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받으며, 이는 인간관계의 적응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8]. 또한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 환경에서 느끼게 되는 부정적 상황을 이완시키고,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익힐 수 있는 행위로서 긍정적 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9].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지지를 통해 심리적, 사회적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된다[10].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사회적지지 자원은 친구, 선배, 교수 및 대학 시스템을 통하여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원들과 동화되면서 필요한 정보를 받는다[11]. 이같이, 대

학생들이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12].

그러나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andemic)’에 직면한 대학신입생은 이런 급변하는 환경변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자기 건강 관리 및 새로운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있다[13].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학 생활 적응을 잘 극복하기 위한 회복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회복탄력성은 탄력성에 대한 개인의 심리·사회적 능력을 일컫는 개념으로 ‘회복’과 정신적 저항력을 향상하게 시키고 역경을 딛고 오히려 되뒤어 오르는 ‘탄력성’을 합친 개념을 의미한다[14]. 대학신입생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신입생은 대학 생활 적응에 따른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조절 능력으로 회복탄력성이 필요하게 된다[15]고 한다. 또한, 대학신입생은 대학 생활 속에서 인성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인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은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16]하기에 코로나19(COVID-19)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생 스스로 회복탄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17]. 이같이 대학신입생이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18]. 또한 대학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대학 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가 매개효과로 나타났고[11],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및 정신건강이 회복탄력성과 관련이 있었고[19], 대학 1·2학년생의 회복탄력성, 사회적지지가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20]. 하지만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특수한 재난 환경 속에서 지역대학 신입생 대상으로 사회적지지 및 회복탄력성이 대학 생활 적응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대학에 입학은 하였지만, 방역수칙에 대한 사회적 협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학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학신입생 대상으로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변수와 대학 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지역대학 신입생들의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이 대학 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위한 정책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K대학신입생의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이 대학 생활 적응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신입생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 대학신입생의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대학신입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대학 생활 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학신입생의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K대학신입생의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실증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K도에 소재한 K대학교에 재학 중인 신입생이 연구대상이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표본크기는 중간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증력 .80, 예측 변인 9개로 하였을 때, 다중회귀 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산출의 크기는 114명이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편의표집에 의해 118명에게 설문지를 돌려 수거하였다.

### 2.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였고, 질문지의 특성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문항, 사회적지지 12문항, 회복탄력성 35문항, 대학 생활적응 67문항을 합쳐 총 1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2.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전공, 거주형태, 학비조달경로, 수업형태, 수업만족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가의 총 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 2.3.2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지지는 가족과 친구의 지지 및 의미 있는 중요한 타인으로서의 교수 지지를 함께 측정하기 위해, Zimet 등[21]이 개발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MSPSS) 척도를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7점 Likert 척도로 유의미한 주변인, 친구, 가족의 세 자원으로부터 인지되는 사회적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12문항으로 만들어진 척도로서 세 자원들로부터 인지된 사회적지지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타인, 친구, 가족의 세 개의 하위척도로 나뉘며, 하위척도는 각각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다. 전체적 사회적지지 점수는 각 항목의 점수를 더하여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타인을 학과의 교수들이나 지도교수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에 있어서는 전체 문항의 문항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alpha$ 는 0.91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각 하위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90~.95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  .922였다.

#### 2.3.3 회복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Revich와 Shatte[22]의 회복탄력성지수검사(resilience quotient test)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번역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검사를 Kim[23]의 연구에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Kim[23]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771였다.

#### 2.3.4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는 Baker와 Siryk[8]가 제작한 것을 Hyun & Choi[24]이 번안하고, Park & Chong[25]이 재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정도를 자기보고식 방법으로 알아보는 검사이며 총 6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들은 대학의 교육적, 학업적 요구에 관한 학업 적응(24문항), 대인관계 및 사회적 요구와 관련된 사회적응(16문항), 심리적 혹은 신체적 불편감을 나타내는 정서 적응(16문항), 대학에 대한 유대 정도와 대학의 질에 대한 대학 만족도, 그리고 학업적 목표에 대한 몰입 정도를 알아보는 대학 환경적응(11

문항)으로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다. 이 척도는 9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9점)'로 4개의 하위척도의 점수를 합하여 총 대학생 생활 적응 점수를 산출해 낼 수 있다. 각각의 하위영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25]이 재번안한 연구에서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  .93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31이었다.

## 2.4 자료수집

본 연구를 시행에 앞서 K대학교 연구윤리심의회의 승인(1040460-A-2021-007)을 받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5월 10일 까지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네이버 폼 양식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온라인 동의서를 받은 후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대상자가 직접 시행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조사 시간은 15~20분 소요되었다.

##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대학 생활 적응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대학 생활 적응의 정도는 independent t-test 또는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대학 생활 적응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대학 생활 적응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여학생 90명(76.3%), 전공은 건강과학대학 42명(35.6%)이 가장 많았으며, 거주 형태는 본가 통학 63명(53.4%)이 반 이

상 차지하였다. 등록금 납부 방법에서는 부모님 지원 67명(56.8%)이 가장 많았다. 수업만족도는 만족 56명(47.5%)이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에서는 '그렇다'가 77명(65.3%)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에서는 '그렇다' 85명(72.0%)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 사회적지지의 세부항목 중 가족 지지에서 전공( $t=4.29, p=.016$ ), 수업만족도( $t=5.838, p=.004$ ),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t=4.006, p<.001$ ) 및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가( $t=4.774,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친구 지지에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t=3.997, p<.001$ ),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가( $t=7.005,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다.

타인 지지에서는 전공( $t=8.53, p<.001$ ), 수업만족도( $t=6.109, p=.003$ ),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t=5.607, p<.001$ ),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가( $t=5.967,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다. 사후분석 결과 문과대학보다는 사범대학이, 수업만족도에 불만족보다 만족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및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가에서 '그렇다' 더 높았다.

회복탄력성의 세부 항목 중 자기조절능력은 전공( $t=4.290, p=.016$ ),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t=2.128, p=.035$ ),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가( $t=2.252, p=.026$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긍정성은 전공( $t=8.530, p<.001$ ), 수업만족도( $t=9.112, p<.001$ ),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t=3.058, p=.003$ ),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가( $t=3.236, p=.002$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대학 생활 적응 중 학업 적응은 성별( $t=2.105, p=.037$ ), 전공( $t=7.090, p=.001$ ), 거주 형태( $t=2.235, p=.027$ ), 수업만족도( $t=3.829, p=.025$ ),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t=2.213, p=.029$ ),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가( $t=2.124, p=.036$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다. 사후분석 결과 여성보다 남성이, 문과대학보다 건강과학대학, 하숙 및 자취보다 집에서 통학이, 수업만족도에서 불만족보다 만족이 높았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가에서 '보통'보다는 ' 좋음'이 높았다.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가에 '그렇다'가 '그렇지 않다'보다 높았다.

사회적응에서는 전공( $t=3.176, p=.045$ ),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t=4.343,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가에서 '보통'보다는 ' 좋음' 더 높았다. 감정적응에서는 감정적응이 높을수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t=-2.668, p=.009$ ),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가( $t=-3.794,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1. Differences of Social support, Resiliency, University adaption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1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Social support						Resiliency					
			Family support		Friend support		Support of others		self control capac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capacity		Positivity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28 (23.7)	6.04 ±1.16	1.199 (.233)	6.05 ±0.89	1.109 (.270)	4.59 ±1.07	0.883 (.379)	3.56 ±0.36	1.629 (.106)	3.13 ±0.45	0.002 (.998)	3.64 ±0.59	1.904 (.059)
	Female	90 (76.3)	5.72 ±1.24		5.81 ±1.03		4.34 ±1.39		3.42 ±0.40		3.13 ±0.40		3.42 ±0.50	
Age (Year)	≤19	95 (90.5)	5.74 ±1.27	-0.898 (.371)	5.82 ±1.04	-1.217 (.226)	4.34 ±1.39	-0.901 (.369)	3.47 ±0.41	1.190 (.236)	3.15 ±0.40	1.005 (.317)	3.47 ±0.51	-0.213 (.832)
	≥20	23 (19.5)	6.00 ±0.99		6.1 ±0.79		4.62 ±0.98		3.36 ±0.35		3.05 ±0.45		3.49 ±0.58	
Major	Health science <sup>a</sup>	42 (35.6)	5.62 ±1.33		5.62 ±1.04		4.29 ±1.42		5.62 ±1.33		5.62 ±1.04		4.29 ±1.42	
	Education <sup>b</sup>	40 (33.9)	6.24 ±1.00	4.290 (.016) a, c < b	6.12 ±0.87	2.642 (.076)	5.01 ±1.01	8.53 (<.001) a, c < b	6.24 ±1.00	4.290 (.016) a, c < b	6.12 ±0.87	2.642 (.076)	5.01 ±1.01	8.530 (<.001) a, c < b
	Liberal arts <sup>c</sup>	36 (30.5)	5.51 ±1.20		5.89 ±1.04		3.84 ±1.26		5.51 ±1.20		5.89 ±1.04		3.84 ±1.26	
Residence type	Commuting from home	63 (53.4)	5.9 ±1.11	1.012 (.314)	5.87 ±0.92	0.026 (.979)	4.46 ±1.33	0.562 (.575)	3.43 ±0.46	-0.526 (.600)	3.13 ±0.46	-0.061 (.951)	3.48 ±0.55	0.133 (.894)
	Boarding house	55 (46.6)	5.67 ±1.33		5.87 ±1.09		4.32 ±1.32		3.47 ±0.32		3.13 ±0.35		3.47 ±0.50	
How to raise tuition	On-campus scholarship	10 (8.5)	5.75 ±0.94		5.68 ±0.72		4.8 ±1.05		3.33 ±0.42		3.13 ±0.41		3.40 ±0.42	
	Off-campus scholarship	41 (34.7)	5.7 ±1.22	0.241 (.786)	5.84 ±1.15	0.281 (.756)	4.2 ±1.27	1.014 (.366)	3.42 ±0.40	0.754 (.473)	3.12 ±0.38	0.008 (.993)	3.43 ±0.52	0.423 (.656)
	Parents	67 (56.8)	5.86 ±1.27		5.92 ±0.94		4.46 ±1.39		3.48 ±0.39		3.13 ±0.43		3.51 ±0.54	
Class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sup>a)</sup>	14 (11.9)	5.45 ±1.21		5.59 ±1.25		4.00 ±1.79		3.40 ±0.58		3.05 ±0.65		3.21 ±0.63	
	Normal <sup>b</sup>	48 (40.7)	5.44 ±1.39	5.838 (.004) a, b < c	5.8 ±0.98	1.192 (.307)	4.01 ±1.35	6.109 (.003) a, b < c	3.48 ±0.37	0.267 (.766)	3.16 ±0.36	0.483 (.618)	3.32 ±0.51	9.112 (<.001) a, b < c
	Satisfaction <sup>c</sup>	56 (47.5)	6.18 ±0.93		6.00 ±0.94		4.83 ±1.03		3.44 ±0.37		3.12 ±0.38		3.67 ±0.44	
Solve the problem oneself	Good	77 (65.3)	6.10 ±1.03	4.006 (<.001)	6.12 ±0.85	3.997 (<.001)	4.84 ±1.17	5.670 (<.001)	3.51 ±0.40	2.128 (.035)	3.15 ±0.45	0.741 (.460)	3.58 ±0.50	3.058 (.003)
	Normal	41 (34.7)	5.21 ±1.35		5.4 ±1.10		3.55 ±1.18		3.35 ±0.37		3.09 ±0.32		3.28 ±0.52	
Get help from people	Good	85 (72)	6.10 ±1.04	4.744 (<.001)	6.21 ±0.74	7.005 (<.001)	4.79 ±1.15	5.967 (<.001)	3.50 ±0.41	2.252 (.026)	3.12 ±0.43	-0.306 (.760)	3.57 ±0.48	3.236 (.002)
	Normal	33 (28)	5.01 ±1.31		5.00 ±1.07		3.37 ±1.20		3.32 ±0.34		3.15 ±0.36		3.23 ±0.5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University Adaption											
			Academic adaption		Social adaption		Emotional adaption		University satisfactions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28(23.7)	5.65 ±1.01	2.105 (.037)	4.93 ±1.19	-0.170 (.865)	4.50 ±1.25	0.320 (.750)	4.55±0.68	-0.561 (.576)				
	Female	90(76.3)	5.30 ±0.67		4.97 ±1.02		4.41 ±1.16		4.65±0.89					
Age(Year)	≤19	95(90.5)	5.42 ±0.80	0.885 (.378)	4.98 ±1.09	0.464 (.643)	4.41 ±1.21	-0.414 (.680)	4.62±0.85	-0.239 (.812)				
	≥20	23(19.5)	5.26 ±0.67		4.86 ±0.91		4.52 ±1.04		4.67±0.81					

Major	Health science <sup>a</sup>	42(35.6)	5.65 ±0.95		4.95 ±1.12		4.64 ±1.27	4.67± 0.89	
	Education <sup>b</sup>	40(33.9)	5.44 ±0.64	7.090 (.001) b, c < a	5.25 ±0.93	3.176 (.045) a, c < b	4.08 ±1.07	2.903 (.059)	4.52± 0.72 (.590)
	Liberal arts <sup>c</sup>	36(30.5)	5.02 ±0.53		3.65 ±1.04		4.59 ±1.11	4.71± 0.92	
Residence type	Commuting from home	63(53.4)	5.53 ±0.85	2.235 (.027)	4.91 ±1.13	-0.542 (.589)	4.47 ±1.15	0.365 (.716)	4.69±0.90 0.841 (.402)
	Boarding House	55(46.6)	5.22 ±0.65		5.01 ±0.97		4.39 ±1.21		4.56±0.78
How to raise tuition	On-campus scholarship	10(8.5)	5.52 ±1.08		4.74 ±1.28		4.59 ±0.74		4.85±0.83
	Off-campus scholarship	41(34.7)	5.45 ±0.63	0.495 (.611)	4.88 ±1.07	0.508 (.603)	4.68 ±1.20	1.783 (.173)	4.72±0.60 (.394)
	Parents	67(56.8)	5.32 ±0.81		5.04 ±1.02		4.26 ±1.19		4.54±0.96
Class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sup>a</sup>	14(11.9)	4.99 ±0.61		4.54 ±1.47		4.66 ±1.54		5.30±1.38
	Normal <sup>b</sup>	48(40.7)	5.29 ±0.76	3.829 (.025) a, b < c	4.84 ±1.03	2.541 (.083)	4.60 ±0.96	1.592 (.208)	4.55±0.79 5.378 (.006) b, c < a
	Satisfaction <sup>c</sup>	56(47.5)	5.56 ±0.79		5.16 ±0.92		4.23 ±1.23		4.54±0.63
Solve the problem ownself	Good	77(65.3)	5.50 ±0.82	2.213 (.029)	5.24 ±0.99	4.343 ( $<.001$ )	4.22 ±1.20	-2.668 (.009)	4.72±0.89 1.579 (.117)
	Normal	41(34.7)	5.17 ±0.65		4.42 ±0.97		4.82 ±1.03		4.46± 0.73
Get help from people	Good	85(72)	5.48 ±0.76	2.124 (.036)	5.03 ±1.06	1.203 (.232)	4.19 ±1.18	-3.794 ( $<.001$ )	4.64± 0.86 (.796)
	Normal	33(28)	5.14 ±0.79		4.77 ±1.02		5.01 ±0.93		4.60± 0.80

사후분석 결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가에서 ‘보통’ 보다는 ‘ 좋음’,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가에 ‘그렇다’가 ‘그렇지 않다’보다 높았다. 대학만족도는 수업만족도 ( $t=5.378, p=.006$ )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수업만족도에 ‘불만족’ 보다는 ‘만족’ 이 높았다 (Table 1).

### 3.2 대학신입생의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대학 생활적응의 정도

Table 2. Levels of Social support, Resiliency, University adaption (N=118)

Main Variables	Main M±SD	Main Min	Main Max	Range
Social Support	5.35±0.99	2.17	7.00	1~7
Resiliency	3.35±0.34	2.54	4.97	1~5
University adaption	4.93±0.63	3.00	7.82	1~9

대학신입생의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및 대학 생활적응 정도는 다음과 같다(Table 2). 사회적지지는 각 문항별 1~7점, 총 12문항, 평균 5.35±0.99점, 회복탄력성은

각 문항별 1~5점, 총 35문항, 평균 3.35±0.34점 및 대학 생활 적응은 학업 적응, 사회적적응, 정서적적응, 대학 만족도의 4개 세부 문항이었으며, 각 문항별 1~9점, 총 67 문항이며 평균 4.93±0.63점으로 나타났다.

### 3.3 대학신입생의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대학 생활 적응의 관계

Table 3. Correlation among Levels of Social support, Resiliency, University adaption. (N=118)

Variables	1	2	3
	r(p)	r(p)	r(p)
1. University adaptation	1		
2. Social support	.042 (0.653)	1	
3. Resiliency	.380***	.372***	1

\* $p<.05$ , \*\* $p<.01$ , \*\*\* $p<.001$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및 대학 생활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들의 대학 생활 적응과 회복탄력성( $r=.380, p<.000$ ),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 $r=.372, p<.000$ )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대학 생활 적응과 사회적지지에서는 ( $r=.042, p<.653$ )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Table 3).

#### 4.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19(COVID-19) 환경 속에서 K대학 신입생의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및 대학 생활 적응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본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적지지는 전공, 수업만족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타인의 도움을 받는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전공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의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 사회적지지와의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지지의 하부요인 중 타인 지지가 높을수록 수업의 만족도가 높았다. 타인의 지지와 수업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있어 교수의 지지가 높을수록 학업 적응도와 수업만족도가 높다[19]. 본 연구대상자들의 K대학에서는 코로나19(COVID-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위하여 수업 전 Learning management system(LMS)를 이용하여 학교 출입 자가 진단서(발열, 증상, 최근 발생지, 동선 일치자 등)를 작성한다. 수업에 있어서는 최소 인원으로 분반 수업을 한다. 또한, 방역은 주말을 이용해 1주에 1회씩 하고 있다. 교수의 지지에서는 ‘교수님과 만난 DAY!’, ‘비교과 서포터즈’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학 신입생들이 상시 신청자에게 온라인 및 대면으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고민을 나누고, 대학 생활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대학 생활 적응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학 사회생활의 적응을 도와주기 위하여 Social Network Service(SNS) 중 하나인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된 파일 교류, 전공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피드백을 통하여 사회적지지를 향상 시켜 대학 생활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대학신입생이 코로나19(COVID-19) 상황 속에서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자신에게 처한 역경을 이겨 내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차이의 하위요소 중 ‘자기조절능력’에서는 전공,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및 타인으로부터의 도움을 받는 것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긍정성’에서는 전공, 수업만족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및 타인으로부터의 도움을 받는 것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비해 ‘대인관계능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대인관계 능력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고, 시험 기간에 한 두 번 만남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제한점이 있었다고 유추된다. 대학신입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외부 환경변화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극복할 능력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의 하부항목 중 자기조절능력과 긍정성에 있어서 전공,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하는가 및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에 의하면 회복탄력성은 대학생의 문제 예방, 치료 및 교육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된다[26]. 이공계 신입생 대상으로 학습 참여와 자기효능감은 회복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신이 성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신입생일수록 개인이 처한 어려움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27].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특수 재난 상황 속에서 대학신입생 스스로 자기 건강 관리 및 대학 생활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는 역량을 스스로 배양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대학 생활 적응과 회복탄력성과의 관계에서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회복탄력성이 대학에서의 성공적인 적응과 만족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20]. 코로나19(COVID-19) 이전에 대학 1.2학년 대상으로 대학 생활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15]. 이것은 본 연구의 대학 생활 적응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에 의한 결과와는 일치하나, 사회적지지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대학 생활을 완전히 대면으로 운영한 것과 대면과 비대면으로 병행하여 운영한 결과에 따른 차이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본 연구대상자들의 대학 생활 적응 중 세부 항목인 학업 적응은 성별, 전공, 거주 형태, 수업만족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타인의 도움을 받는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학업 적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 신입생의 특성과 대학 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와도 결과가 일치한다[28]. 또한, 대학 적응 인식조사 연구에서

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적극적이고 모든 문제 해결에서 앞장서려는 성격으로 인하여 대인관계에 더욱 중점을 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반하여 여학생은 학업에 대한 동기는 높지만, 학업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17]. 코로나19(COVID-19)라는 특수한 환경 상황 속에서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과 다른 대학 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신입생이 대학 생활 적응에 있어 사회적지지 관계 중 하위요소에서는 친구 지지, 가족 지지 및 타인 지지 순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와 다른 도구[29]를 사용한 대학신입생 대상으로 대학 생활 적응과 사회적지지 관계에서 하위요소로 가족 지지, 친구 지지 및 교수 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선행연구[15]에서도 대학 생활 적응과 사회적지지에서는 정서적 지지가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정보적 지지는 가장 낮았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하여 대학신입생들이 대학 생활 적응에 사회적지지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코로나19(COVID-19) 이전은 가족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많은 관계를 준 것을 알 수 있고, 학우들과 교내생활 중 대학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만남을 통하여 감정적 교류를 많이 하여 정서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유추된다. 반면에, 코로나19(COVID-19) 및 변이바이러스 유행 기간 내내 대학신입생이 대학 생활 적응을 하는데 외부 환경이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유추된다.

대학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및 활동을 학교 시스템에서부터 개개인이 행할 수 있는 순서로 보자면, 먼저 학교 측면에서는 비대면 수업을 듣기 위해 반드시 실행할 수밖에 없는 Learning Management System(LMS)을 활용하여 공지사항란에 주기적으로 대학 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업로드 할 필요가 있다.

대학 본부 및 각 단과대학 별로는 기존의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Youtube, Instagram 등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동아리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효과적인 것이다. 교수의 측면에서는 지도교수별로 지도 학생들에게 Zoom과 같은 화상채팅 프로그램, 카카오톡 그룹 톡 등을 사용하여 학교 정보 제공 및 전공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 선후배 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K대학에서 멘토·멘티 프로그램 중 하나인 '패밀리(Family)' 제도를 더욱더 활성화하여 대학 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언한다.

## 5.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COVID-19)상황 속에서 K대학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대한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학생들 스스로 회복탄력성을 유지하면서 적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대학 생활 적응과 사회적지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코로나19(COVID-19) 상황 속에서 대면 수업보다 비대면 수업 위주로 진행하거나, 혹은 블렌디드 교육 방법으로 최소의 학생들이 등교하여 수업을 수강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대학신입생의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교수 및 대학신입생 모두가 서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존과 다른 사회적지지 전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대학신입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과 관련된 사회적지지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상황에서는 학교, 교수 및 학생 모두 삼위일체가 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측은 신입생에 대한 정보를 APP 또는 SNS를 통해서 수시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교수 측면에서는 대면이 불가할 경우, 비대면으로 ZOOM이나 카카오톡을 통하여 신입생들을 대학 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 건강 관리 및 상담을 지속해서 제공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신입생에 있어서는 고등학교와 달리, 자발적으로 대학 생활 적응에 관련된 정보수집 및 적응 전략을 계획적으로 세워서 대학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소 지역 1개 대학신입생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대학신입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는 다기관-다지역 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WHO : WHO, The declaration COVID 19 'pandemic. 2020-04-12, 06:50. Available from: <https://m.medigatenews.com/news/3323472469>. 2021.04.12.
- [2] J. M. Lee. (2020). An exploratory study on effects of loneliness and You Tube addiction on college life



- adjustment in the distance education during COVID-19.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7), 342-351.  
DOI : <https://doi.org/10.5392/JKCA.2020.20.07.342>
- [3] K. H. Kim & S. B. Kang. (201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Life Adjustment Scale for University Freshmen. *The Korean Association of general education*, 10(3), 253-293.  
UCI(KEPA):I410-ECN-0101-2017-377-001382051
- [4] K. A. Shin. (2019). Comparisons of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ppin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by type D personal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10), 273-282.  
DOI : 10.14400/JDC.2019.17.10.273
- [5] C. S. Lee & H. K. Lee. (2014).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adaptation to college life of students-focused on the freshmen of K college. *Journal of Student Guidance Research*, 20, 19-31.
- [6] I. S. Choi & E. J. Joo. (2016). Self-freder in the effects of college adaptation on career preparatory behavior. Mediating effects of ten and social support. *Juvenile Studies*, 23(6), 145-173.
- [7] Y. J. Oh. (2017). Predictors of college lif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7), 307-317.  
DOI : 10.14400/JDC.2017.15.7.307
- [8] S. Cohen & H. M. Hoberman.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DOI:<https://doi.org/10.1111/j.1559-1816.1983.tb02325.x>
- [9] C. J. Lee & K. J. Kwak. (2000). Self-concept and social support according to bullying types.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3, 65-80.
- [10] S. Y. Lee. (2017). The convergent effect of ego-resili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ocial support on department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2), 403-412.  
DOI : 10.14400/JDC.2017.15.12.403
- [11] K. A. Kang & H. Y. Cho. (2018).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3), 210-218.  
DOI : <https://doi.org/10.5762/KAIS.2018.19.3.210>
- [12] K. M. Lidy & J. H. Kahn. (2006). Personality as a predictor of first-semester adjustment to college: The mediation ro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9(2), 123-134.  
DOI : <https://doi.org/10.1002/j.2161-1882.2006.tb00099.x>
- [13] H. Y. Jung. (2016).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life stress, depression and ego resiliency on college life adaption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7), 259-268.  
DOI : 10.14400/JDC.2016.14.7.259
- [14] J. H. Kim. (2019). Resilience, Wisdomhouse.
- [15] B. R. Cho & J. M. Lee (2019). Effects of undergraduate students' stress,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on college life adjust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4), 1-11.  
DOI : <https://doi.org/10.14400/JDC.2019.17.4.001>
- [16] M. H. Nam & H. O. Kim (2018). Effect of personality and resilience on satisfaction with maj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4(4), 298-306.  
DOI : <https://doi.org/10.11111/jkana.2018.24.4.298>
- [17] J. N. Jeong. (2020).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on resilience of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9), 403-411.  
DOI : 10.14400/JDC.2020.18.9.403
- [18] J. S. Lee (2016).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resilience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0), 253-260.  
DOI :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0.253>
- [19] J. H. Kim(2012).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on their school life adap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Paejae University.
- [20] J. N. Jeong. (2020). The impacts of resilience, social support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freshman and sophomore year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2), 385-394.  
DOI : <https://doi.org/10.15207/JKCS.2020.11.2.385>
- [21] G. D. Zimet & N. W. Dahlem.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DOI :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5201\\_2](https://doi.org/10.1207/s15327752jpa5201_2)
- [22] K. Reivich & A. Shatt. (2002). The resilience factor: 7 essential skills for overcoming life's inevitable obstacles. Broadway books.
- [23] S. B. Kim. (2016).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subjective happiness, and resili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 [24] J. W. Hyun & J. H. Choi. (1992). The effect of perfectionism and evaluative threat on the performance of task.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 463-472.
- [25] B. H. Park & Y. S. Chong. (2007). Student personal characteristics, parent attachment and adjustment in college.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25(3), 45-57.
- [26] S. Y. Joo & Y. J. Jeong. (2021). Analysis on relations of student engagement, self-efficacy, resilience, and satisfaction with general education of freshmen in science and engineering.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7(2), 239-257.  
DOI : <https://doi.org/10.24159/joec.2021.27.2.239>
- [27] E. J. Kim & Y. S. Kang. (2015). The relation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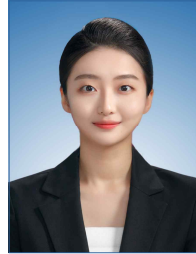
between college students' past experiences of depression, suicidal thoughts and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 Research*, 21(1), 1-10.

[28] G. Y. Jeong. (2020). An empirical study on adaptation to college and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freshman focusing on the case of D university's local campus. *The Korea society of culture and convergence*, 42(11), 325-346.  
DOI : <https://doi.org/10.33645/cnc.2020.11.42.11.325>

[29] J. Y. Song. (2017).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n Industrial-Academic Technology Society*, 18(12), 335-345.  
DOI : <https://doi.org/10.5762/KAIS.2017.18.12.335>

조 해 윤(Hae-Yun Jo)

[학사취임]



- 2018년 3월 ~ 현재 :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중
- 관심분야 : 환자안전, 간호교육, 간호중재, 재활간호
- E-Mail : [cutehy99@naver.com](mailto:cutehy99@naver.com)

김 혜 옥(Hae-Ok Kim)

[졸업]



- 1998년 8월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관리학과(보건학 석사)
- 2003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간호서비스, 간호교육, 질적연구

· E-Mail : [hok503@kyungnam.ac.kr](mailto:hok503@kyungnam.ac.kr)

윤 중 식(Jong-sik Yoon)

[학사취임]



- 2017년 3월 ~ 현재 :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중
- 관심분야 : 환자안전, 간호교육, 간호중재, 응급간호
- E-Mail : [kang9727@gmail.com](mailto:kang9727@gmail.com)

김 진 현(Jin-Hyun Kim)

[학사취임]



- 2019년 3월 ~ 현재 :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중
- 관심분야 : 환자안전, 간호교육, 간호중재, 근거기반간호
- E-Mail : [dolphann@naver.com](mailto:dolphann@naver.com)